

## 주제: 쇠신; 글 제목: 성지에서 기도하기

많은 사람에게 순례는 쇠신의 시간입니다. 어느 특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걷는다고 보다, 과거에 그곳에 누가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며, 그 것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더욱이 순례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Holy Land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살고 있는데, 이곳의 교회와 수도원은 125 년 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머무르셨던 (요한 1 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통과하고,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이집트를 통해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45 일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워싱턴 DC 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로 11 시간 만에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여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을 가서 걸어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용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수도원에는 성지에 있는 성당이나 거룩한 곳에 있는 성물들의 복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성 예레니모 성인께서 성지를 '제 5 의 복음서'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성지에 머무르면서, 보고, 거닐고, 기도할 때 기록된 복음서를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지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신자는 "이 특별한 장소"에 있다는 것에 무척 감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타보르 산에 올라가고, 부활의 장소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의 신부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걷는 것이 어떠했는지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를 마치고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우리가 변화되었기를 바라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타보르 산과 빈 무덤에서 체험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 신부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적에게 두들겨 맞은 이를 발견한 그 외로운 길에서 가졌던 체험으로 인해 신부님의 설교 말씀이 변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만이 유일한 순례의 장소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계 곳곳의 거룩한 장소로 길을 떠납니다. 워싱턴 DC 에 있는 이곳 Holy Land 수도원도 그중 한곳입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밖에 순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몇백년밖에 안 되었을 때, 에게리아는 성지로 순례를 갑니다. 오늘까지 그녀의 회고록을 있으며, 교회 역사, 순례, 또는 전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례 예식과 예배에 대해 묘사했는데, 이 예식은 약간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식은 성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도원에서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과연 무엇을 집으로 가져와야 하며, 내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Mt. St. Sepulcher Church, Holy Land 프란치스코 수도원

부활의 장소에서 본 골고타 (복제)



그리스도의 무덤 (복제)

